지식경제부	보도자료	함께하는 공정사회! 더 큰 희망 대한민국 http://www.mke.go.kr
2012년 1월 19일(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정보통신산업과 최우석 과장(02-2110-4810), 노영식 사무관(02-2110-4815)		

SW, 모바일 등 IT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 시동 걸었다

- 18일, LB인베스트먼트 등 8개 투자펀드 운용사와 투자활성화 MOU 체결 -

□ 지식경제부는 윤상직 제 1차관 주재로 18일 서울 JW메리어트호텔에서 투자펀드 운용사(8개)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간의 'IT분야 투자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투자 애로사항 발굴·해소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 함.

○ 협약에서 SW, 모바일, 클라우드 등 지속적 성장세가 기대되는 IT 및 IT융합 분야에 투자를 확대하고, 투자 유망 기업 발굴 및 투자기업의 성장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키로 했음

○ 이번 협약에 참여하는 투자펀드 운용사는 정책금융공사·국민연금·우정사업본부 등이 출자하여 결성한 펀드 운용사 중 지난 연말에 신규로 투자펀드를 결성한 8개사가 참여했으며, 이들 8개사가 운용하는 펀드 총규모는 2조 1천억원 규모 임.

< 운용사별 펀드 규모 >

(단위 : 억원)

펀드운용사	운영펀드 총규모	펀드운용사	운영펀드 총규모
LB인베스트먼트(주)	4,740	(주)SL인베스트먼트	2,275
원익투자파트너스(주)	3,110	(주)파트너스벤처캐피탈	2,180
인터베스트(주)	2,980	(주)IBK캐피탈	1,900
튜브인베스트먼트(주)	2,490	IMM인베스트먼트(주)	1,467

○ 간담회에서는 그동안 IT분야 투자 실태, 향후 전망 및 투자 계획을 짚어보고, IT분야 투자 시 애로사항 등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함

○ 지식경제부는 이번 협력 협약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계속하여 모태펀드 등 IT분야 투자에 관심 있는 투자펀드 운용사들과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함.

□ 지식경제부는 IT분야 벤처 신규투자가 2000년대 초를 정점으로 지속 감소했으나, 최근 들어 IT산업이 모바일화·스마트화 및 산업의 IT융합화에 따른 시장 확대 등으로 향후 IT분야 투자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투자자금의 IT분야 투자 확대 유인을 위하여 투자펀드 운용사들과 협력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힘.

< IT분야 신규 투자 현황 >

(단위 : 억원, %)

구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정보통신	금액	4,867	3,014	2,914	2,757	3,006	2,713	3,137	2,105	1,970	2,956	3,140
	비중	54.6	48.8	46.2	45.6	39.6	37.0	31.6	29.0	22.7	27.1	28.3
전체(합계)		8,913	6,157	6,306	6,044	7,573	7,333	9,917	7,246	8,671	10,910	11,108

* 자료 : 한국벤처캐피탈협회('11.11.)

< 한국과 미국 IT산업의 GDP 비중 대비 투자 비중 >

구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IT산업의 GDP비중	한국	9.2%	9.5%	9.9%	10.3%	11.0%	11.2%
	미국	2.0%	1.9%	2.0%	2.0%	-	-
IT분야 벤처투자 비중	한국	37.0%	31.6%	29.0%	22.7%	27.1%	28.3%
	미국	43.1%	37.7%	41.1%	38.1%	39.8%	40.4%

* 자료 : 한국벤처캐피탈협회('11.11.), 미국 상공부 BEA

□ 이날 협약에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투자유망기업 발굴·추천, IT기술 및 기업 등 투자정보 제공, 투자심사역의 IT 전문성 교육 등 투자자의 투자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투자기업에 대하여 R&D·자금·인력·해외진출 등의 지원을 통한 투자기업의 가치제고에 역량을 모으기로 함.

< NIPA의 토탈 투자 지원 프로그램 >

구분	추진내용(계획)
투자유망기업 발굴	- 기술개발 및 사업화 성공업체 등 기술·시장성·기업가치 우수 업체 발굴하여 투자대상으로 추천 * 투자협력 강화를 위해 관련기관과 투자협의회 구성 운영
투자활동 지원	- IT산업 및 기술동향·기업정보 등 투자정보 수집·분석하여 제공 - 대학, 연구기관 등 전문가로 기술자문단을 구성하여 기술평가 등 기술전문성 지원 - 투자심사역의 IT분야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 IT기업과 투자자 소통 네트워크 구축 운영 * IT기업과 투자자 정보교류를 위한 간담회, 기술세미나, 투자설명회 등 정기 개최
투자기업 성장지원	- R&D, 자금, 인력, 해외진출 등 지원사업 추진시 투자기업 참여 확대 * 지원대상 선정시 가점 부여 등 우대, 투자연계형 R&D 추진 등 - 투자기업의 성장역량 강화를 위한 생태계 조성 및 경영투명성 확보를 위한 모니터링 강화 * 기술경영·마케팅 등 전문가 컨설팅 지원, 우수기술 사업화 지원 등 확대

○ 투자펀드 운용사는 운용 중인 자금을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추천한 지원대상 풀을 활용하여 IT 및 IT융합 분야의 기술개발·사업화·글로벌 진출 등에 투자 확대를 추진키로 함

○ 또한, 협력내용 실행을 위하여 8개 투자펀드 운용사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간 투자협의회를 구성하여 정기적인 투자실태 점검 및 투자정보를 교류키로 하였음.

□ 한편, 이날 참석한 투자펀드 운용사 대표들은 급변하는 IT산업 및 기술의 투자 수요를 예측하고 신규 투자처를 발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IT기업과 투자자 간에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를 위한 지원 등을 주문 함

□ 지식경제부 윤상직 차관은 이번 투자협력이 IT전문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에 새로운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민관협력을 통해 IT전문기업 육성에 더욱 주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함.

<참고자료>

1. IT분야 투자활성화를 위한 MOU 체결 및 간담회 행사 개요
2. IT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 추진계획

< 참고 1 >

IT분야 투자활성화를 위한 MOU 체결 및 간담회 행사 개요

□ 행사 개요

○ 일　시 : '12. 1. 18(수) 14:00 ~ 15:30

○ 장　소 : JW메리어트호텔 3층 미팅룸(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 참석자 : 지식경제부 차관, MOU 체결 당사기관 대표(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8개 투자펀드 운용사 대표*)등 15명

* LB인베스트먼트(주) 대표이사 구본천, 원익투자파트너스(주) 대표이사 이용성, 인터베스트(주) 대표이사 우충희, 튜브인베스트먼트(주) 대표이사 김형달, (주)SL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 이영수, (주)파트너스벤처캐피탈 대표이사 김기식, (주)IBK캐피탈 부사장 이종열, IMM인베스트먼트(주) 대표이사 지성배

□ 행사 주요내용

○ MOU : IT기업에 투자확대, 투자대상기업 발굴 등 투자활동 지원 및 투자기업 성장지원 등 협력

○ 간담회 : IT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 추진계획 발표, IT분야 투자 실태·전망·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 토론

□ 진행 순서

시 간	주요 내용	비 고
14:00~14:05	개회 및 참석자 소개	사회자
14:05~14:15	MOU 주요내용 설명	NIPA
14:15~14:30	MOU 체결 및 기념촬영	협약당사자
14:30~15:30	IT분야 투자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주제발표(NIPA)

< 참고 2 >

IT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 추진계획

1. 추진배경

□ 무형자산 의존도가 높은 기술혁신형 IT중소기업은 R&D 성과물의 후속투자 등 사업화 자금 조달에 애로

* 일반금융(51.1%) 및 정책자금(38.8%) 등 간접금융에 주로 의존, 주식·회사채 등 직접금융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비중은 미미(3.6%)

○ 모바일화·스마트화 등 성장 모멘텀에 대한 재인식, 산업의 IT융합화에 따른 시장 확대 등으로 향후 IT분야 투자 수요는 지속 증가할 전망

* IT융합 시장규모 : ('10)1.2조불→('15)2조불→('20) 3.6조불 등 年11.8% 고성장 전망

□ IT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신규 투자 지속 감소

○ IT분야 벤처 신규 투자 2000년 초를 정점('01년 57.7%)으로 지속 감소 추세이며, 산업의 중요성에 비해 투자 비중은 미국 등에 비해 열세

* IT분야 신규투자/산업 비중(최근 5년 평균) : (미국) 39.8%/2.0%, (국내) 29.4%/10%

< 연도별 벤처 투자현황 >

(단위 : 개, 억원)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업체	금액	업체	금액	업체	금액	업체	금액	업체	금액
총투자재원	–	66,234	–	68,369	–	71,635	–	79,200	–	88,586
전체 신규 투자액	617	7,333	615	9,917	496	7,247	524	8,671	560	10,910
IT부문 투자액	271	2,713	227	3,137	163	2,105	140	1,970	150	2,956
IT 비중(%)	43.9	36.9	36.9	31.6	32.8	29.0	26.7	22.7	26.8	27.1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 정책금융공사, 국민연금, 우정사업본부 등이 출자한 **투자펀드와 연계**하여 **IT분야 투자 확대** 유인 필요

2. 주요 추진내용

1 민간 출자 펀드의 IT분야 투자 확대

□ 국내 주요 펀드운용사와의 IT분야 투자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정을 체결하여 **IT기업에 투자 확대**

○ (주요내용) 투자자금의 IT기업 투자확대를 위한 공동협력

- 투자재원 확대, 유망기업 발굴 등 투자활동 및 투자기업 성장 지원 협력 등

○ (협약기관) 투자펀드 운용사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운영체계)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주관으로 실무협의회 구성 운영

2 투자유망기업 발굴 등 VC의 투자활동 지원

□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기술평가기관 정보, NIPA 등 IT기업 지원기관 전문성을 활용하여 **투자 유망 IT기업 발굴·추천**

○ 투자 수요조사, R&D 및 사업화 수행실적 등과 연계하여 기술·시장성·기업가치 등을 분석·평가하여 성장 잠재력 있는 기업 발굴

- 대학, 연구기관, VC 심사역 등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심의·평가위원회에서 유망 IT기업을 선정하여 투자 대상으로 추천

○ SW, 모바일 등 기술 및 시장 성장 모멘텀이 큰 분야 중점

□ 투자 정보 제공·기술전문성 지원 등 **VC의 투자활동 지원**

○ 국내외 IT산업 및 기술 동향, 기업정보 및 투자수요 등 투자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제공

○ 대학·연구기관·IT기업 등 기술 전문가로 기술자문단을 구성하여 투자심사 시 기술평가 등 기술지원

○ 투자심사역을 대상으로 IT분야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소통·협력 강화를 위한 IT기업-VC 투자 네트워크 구축

○ "IT기업-VC Networking Day" 정기 개최하여 R&D 및 사업화 성과, 우수기술 소개, 기술동향·투자수요 등 투자정보를 교류

- IT기업·VC·유관기관 참여하여 간담회, 기술 세미나 및 컨퍼런스, 투자설명회(IR) 등 개최

③ 투자기업 지속성장 지원을 통한 가치 제고

□ IT산업 육성 **지원 프로그램에 투자기업 참여 확대**

○ R&D, 자금, 인력, 해외진출 등 지원사업 추진시 투자기업 참여 확대

* 지원 대상 선정 시 가점 부여 등 우대

○ 기술개발 및 사업화 성공 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투자연계형 R&D 추진

* 글로벌전문기술개발 등 IT중소기업 전문 지원사업부터 실시하고 점차 확대

□ **성장 역량 강화**를 위한 생태계 조성

○ 투자기업의 기술·경영·마케팅 등 경영역량 제고를 위하여 애로사항에 대한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 지원 확대

○ 수요기업과 공동기술개발, 우수기술 홍보 등 사업화 지원 확대

* 기술확산지원 등 IT중소기업 지원사업과 연계 추진

□ 투자기업의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사업실적 평가 등 경영전반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하여 VC와 정보 공유

3. 향후계획

□ 투자네트워킹 및 IR 추진

○ (추진내용) IT기업-VC 정보교류를 위한 간담회, 기술 세미나 및 컨퍼런스, 투자설명회 등 추진

○ (개최방법) 시장수요를 교려하여 산업분야별 순차적 개최

○ (개최시기) 분기별 1회

□ 토탈 투자 지원시스템 구축 운영

○ (추진내용) VC-IT기업 양방향 서비스 인프라 구축

- IT기업 투자 확산을 위한 투자대상 기업 발굴 등 VC의 투자활동 지원
- 투자기업의 성장 역량 강화 지원 프로그램 등 운영

○ (추진방법) IT중소기업 지원 전문성을 고려 NIPA를 전담기관으로 지정·운영

○ (추진일정) '12년 중에 준비 완료하여 '13년부터 운영